

과하는 나라의 사업자가 통화량에 따라 해당 착신국 사업자에게 지불한다(이용자로부터 수납한 전화요금과는 다름). 최근 국제계산요금의 하방경직성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CCITT는 국제계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검토를 행하고 있다.

KT, 인도네시아 通信網建設事業에 進出摸索

KT(Korea Telecom : 한국통신)를 비롯한 대우, Bell Atlantic, Siemens 및 인도네시아 현지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움은 인도네시아의 수익분할방식에 의한 통신망정비 프로젝트의 예비심사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사업자에 의한 해외 통신망건설사업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의 예비심사에는 이 콘소시움외에 Nynex, NTT, France Telecom, Singapore Telecom으로 구성된 콘소시움도 통과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500만 회선의 건설을 몇 개의 집단으로 분할하여 발주할 계획으로 있어 예비심사를 통과한 콘소시움들은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KT는 올해 상반기 중에 콘소시움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과 출자비율 및 사업내용에 관한 조정을 거친 후 인도네시아 정부에 정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

호주, 電話番號案内서비스 有料化에 利用者 反撥

독립규제기관인 Austel은 현재 AOTC가 신청중인 시내전화번호 안내서비스(013서비스)의 유료화에 관해 국민여론을 조사하고 있다.

AOTC는 금년 4월 2일 국내전화요금의 재편을 실시하여 시내전화요금을 인상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적자인 시내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 대해서도 1회사용료로 60센트(약 388원, 단 1개월에 5회까지는 무료, 공중전화나 셀룰러전화사용시는 무료, 장애인에 대해서도 무료)를 부과할 것을(금년 8월 실시 예정) 교통·체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의 자문을 받아 일반의 의견을 청취하기에 이르렀다(작년에 개정된 신통신법에 의하면 Austel은 정책결정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독단적으로 요금변경을 할 수 있으나 전화번호 안내서비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ATUG는 유료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AOTC의 결정이 주목된다.

Telecom Malaysia, 5個社에 디지털 交換機를 發注

Telecom Malaysia가 '91년 4월에 발표한 앞으로 5개년 동안 건설할 예정으로 있는 400만 회선의 디지털전화설비계획에 9개 회사가 입찰경쟁을 하였으며, 이 가운데 Ericsson, NEC, Alcatel, 富士通, Nokia 등 5개사가 수주사로 잠정 결정되었다. 각사는 각각 80만 회선씩 수주할 것으로 보이며, 이사업을 위해 Telecom Malaysia의 총투자액은 20만 말레이시아 달러(약 6,000억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AT&T, Siemens는 이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묵살할 것으로 보인다.